



익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용(用)무생사인데 이는 바로 활용과 수용의 단계입니다. 말랑말랑한 홍시를 사람도 먹고 새들도 쪼아 먹는 단계지요. 대중 속에 있던 토굴에서 독살이를 하든 용무생사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얼마나 잘 익히는가 하는 문제는 자신의 몫입니다.

“스님의 대답이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수행자는 항상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인’이 ‘완성자’의 흉내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불교계는 과정의 소중함보다 완성자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은 것이고 관념놀이 빠져 진리의 고갱이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의 불교계를 향해 ‘서리도 맞지 않은 감이 훑시라고 한다면 그 짧은 맛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원로 중진들은 불교 현실에 대해 존엄하게 책임을 묻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리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듣게 될 겁니다. 부분적인 이야기겠지만 선방 선객들이 공부에 밀쳐 두고 해제비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미 선도 관념놀이 깊어 병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푸른 잎이 들지 않은 앞산에 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마당가에 서서 ‘열변’을 토하는 영봉 스님이 선방이란 단어를 꺼내자 봉암사 이야기가 금금해졌다.

“봉암사가 조계종특별선원으로 지정될 때 스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요.”
“아, 그거 참 오래 전의 이야기예요. 속리산과 월악

산 국립공원 사이에 있는 회양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시 나는 봉암사 선방에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봉암사마저 관공지가 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원천 스님 원행 스님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 각오를 다지고 반대에 나섰지요. 원천 스님은 해인사 출신이고 원행 스님은 통도사 출신 그리고 나는 송광사 출신이니 3보 사람의 선객이 문쳐 봉암사를 지키자고 결의했던 겁니다. 정부기관과 총무원 그리고 종단의 수좌들을 나눠 맡은 다음 국립공원 지정 반대와 봉암사 특별선원 지정을 추진했어요. 당시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하며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봉암사마저 지키지 못하면 한국불교의 가풍을 어디서 찾느냐”며 의지를 수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결국 앉아서 받아먹는 불교에서 자급자족하며 웅골차게 정진하는 불교로 바뀌어가는 취지였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영봉 스님이 중앙승가대학에 불전국역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주축이었던 것도 기억이 났다. 스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경의 문제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종단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데서 “더 이상 기대조차 못하게 하는 비참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당시 스님은 중앙승가대에 산악회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해종 스님이었다. 산악인들 사이에 스님은 ‘전설’이었다. 전문적으로 산악 등정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스님이 1990년 이후 안나 푸르나 산군을 위시한 히말라야의 큰 봉우리들을 차



쌀 한 톨이라도 가져 받아 먹을 수 없어 오가피 농사를 짓는 영봉 스님.

“관념의 굴레 벗고 세상과 부딪쳐야”

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정대로 꾸리지 않은 단독으로, 요즘도 해발 4000미터에 이르는 네팔의 솔로콰 부 지역 자락콰에 있는 토굴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스님에게 히말라야는 아주 특별한 산일 수밖에 없다.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왜 히말라야를 오를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스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요?”

“처음 히말라야를 오르고 싶었던 마음은 부처님이 생을 거듭하며 수행하던 산이란 단순한 이유였지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난 히말라야에서 몇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야말로 생사를 돌 아나게 체험하는 확실한 선방이라는 생각이었지요. 해발 4000m 이상 오르면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사방은 눈 덮인 산뿐이니 순간적으로 삶과 죽음의 길을 오가게 되지요. 편한 곳에서 말로만 ‘생사일어’를 떠드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새록새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카필라국의 위치는 길이 3000km에 이르는 히말라야의 중앙지점입니다. 안나푸르나 산봉우리들을 오른 것(1990년)도 그 까닭이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부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관념 속에서 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깨닫고 길에서 진리를 설하다가 길에서 육신을 버린 부처님, 그 길의 의미를 생각하고 생각하다보면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히말라야는 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도량입니다. 사람들은 등산, 등정, 정복 등의

“히말라야는 생사를 돌 아나게 체험하는 확실한 선방이에요. 해발 4000여m를 오르면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순간적으로 삶과 죽음의 길을 오가게 되지요.”

표현을 하는데 그것 보다는 입산(入山)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산은 6바라밀을 아주 절절하게 설명하는 곳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셀파나 포터, 키친보이 등)과 무엇이든 공평하게 나누는 보시의 정신이 없으면 팀웍이 깨지고 맙니다.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에 절제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니 지계입니다. 또 인욕의 덕목은 산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인욕을 버리면 곧바로 죽음이니까요. 끝없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산행은 곧 정진의 도리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동(動)은 절대 정(定)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하니 곧 선정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차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산은 지식을 초월한 자기기지의 결집으로 생존의 지혜를 걸러 줍니다. 나

는 산에서야말로 6바라밀의 가르침과 그 도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절실하게 배웠고 그것은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팔 자락콰에 있는 스님의 토굴에 한국의 스님들이 가서 정진할 수 없나요?”

“토굴이야 늘 열려 있지만, 원하는 분이 없지요. 해발 4000m 지점에 오르면 고소증이 극심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는 참선이라 뭐다 하는 격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와 가짜를 다 꺼낼 수 있는 곳이지요. 선방에서는 구참 대접을 받는 몇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모두 적응하지 못하더군요. 저도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오래 고생한 곳이지만... 아무튼 나는 4000m를 건너지 못하는 선객들에게 ‘그간 헛공부 했구나’ 하고 한 마디 했어요. 사실 국내에서 선방 이력을 ‘계급장’으로 삼고 있는 분들을 보면 꼭 히말라야의 ‘큰 선방’을 체험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다. 스님은 부엌에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화장실 안쪽 벽에 도배를 했던 데요?”

“그곳이야말로 가장 깨끗해야 할 곳입니다. 인간은 오물을 생산하고 버릴 줄만 알았지 관리할 줄 모르거든요. 이곳 화장실에는 휴지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배설물만 받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나에

게는 그곳이 산신각이라니까요. 하하하.”

영봉 스님은 토굴을 한 해 한 번만 개방한다. 문은 늘 열려 있지만 공식 법회는 부처님오신날에만 연다. 토굴이기 때문이다. 찾아오는 신도는 20여명이지만 등은 20여개가 걸린다. 스님이 모은 세계 각국의 등이 형형색색 토굴을 장엄한다. ‘등값’은 받지 않는다. 성의껏 공양 올리게 한다.

“더 많은 스님들이 ‘히말라야 선방’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그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공양물이 넘쳐 나는 선방이 아니라 생사의 경계조차 희미한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침묵 앞에 앉고자 재출가 재발심을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네팔에서 현지인 셀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입산하는 사람과 현지인들은 소통이 잘 될수록 좋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굴의 봄밤은 정적 속에 물렀다. 느닷없이 찾아 온 나그네의 질문도 이제 바다야 됐다. “내 말이 격하다고 다듬을 필요는 없다”는 영봉 스님의 결연한 의지가 수침을 든 기자를 부끄럽게 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도망치듯 첩첩산중 굽잇길 두터운 어둠을 헤쳐며 하산했다.

강릉/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홍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 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홍심,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채사, 신채사,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수저와 같이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가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마찰없는 불

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벨스타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서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있는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재속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치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게 생년월일을 알려 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납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